



6개국 133대 33억달러

(2015년 10월 현재 국산 항공기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Fly Together

2016 JANUARY Vol.193 www.koreaaero.com

World Today
미일동맹 위에 재건한
제국주의의 칼날, 일본

KAI Family
권오성 상무 가족의
삼천포 일출 여행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QR코드를 찍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T-X
ROLL-OUT

Photo Album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

KF-X 체계개발 계약 체결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위한 우리 회사와 방위사업청의 본 계약이 지난 해 12월 28일 체결됐다. 본 계약은 우리 회사와 방사청 양측이 2026년 상반기까지 KF-X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력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KF-X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사업 예산은 모두 8조 원으로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업체가 20%를 부담한다.

2015년 11월 22일 인도네시아 측이 KF-X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약 체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지난 1월 7일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PTDI社와 공동개발사업 본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방사청과 함께 KF-X 공중 시험을 위한 비행 시제기 6대와 지상 시험용인 구조 시제기 2대를 생산하고 훈련·군수지원체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게 된다.

하성용 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KF-X 체계개발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화 물량을 포함해 약 1,000대 이상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투기 주요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당부했다.

CONTENTS



KAI Magazine

- 16 World Today 미일동맹 위에 재건한 제국주의의 칼날, 일본
- 20 KAI-Toon 기업문화 시리즈①-배려
- 22 Global Story 스타벅스, 배려의 아이콘
- 24 KAI의 달인 항공기생산1팀2직 정재근 조장 & LCH체계종합팀 김선우 수석
- 26 Fly News 2015 세계방산기업 순위 외



KAI 百科

- 02 CEO 동정 항공기 개발센터 준공식 외
- 04 News Focus 산청사업장 금연교실 제1기 발대식 외
- 06 Photo Album T-X ROLL-OUT 행사
- 10 CEO 좌담회 소통과 학합으로 미래 멋거리 꾸준히 창출해 나가야
- 14 항공 테마 칼럼 2016년, 국내 항공산업 선봉장 역할 기대



KAI 행복소통지

- 28 KAI Family 권오성 상무 가족의 삼천포 일출 여행
- 32 생생현장팀방 고정의세부계통설 모여라!
- 38 만나봅시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 40 추억의 여행 제주도 여행기-구주사업관리팀 이정욱 차장
- 44 오늘을 부탁해 미주사업관리1팀 배진영 과장 부부의 결혼기념일
- 46 이야기 한마당 탁구 동호회 '점탁' 아마추어대회 우승기
- 48 Gift Box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발행인 하성용
발행일 2016년 1월 12일(통권 193호·1월호·비매품)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담당자 배희윤 차장, 구보람 과장(055-851-160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제작대행 디자인신화(02-324-6852)
인쇄 심화인쇄(02-850-0850)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CEO Movements

12월은 2015 전사혁신과제 성과 보고회를 비롯해 필리핀 '국군의 날' 비행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 달이었다. 무엇보다 12월 28일 항공기 개발센터 준공식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뤄내며 더욱 도약하는 KAI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5 전사혁신과제 성과 보고회

'2015 전사혁신과제 성과 보고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하성용 사장 및 본부장, 전사혁신과제 추진 조직 및 신규 MBB 인증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의 과제별 주요 성과와 향후 관리방안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올해 최우수 과제로는 'KUH 수출기 원가혁신 T/F'가 수상하였으며, 이어 2015 신규 MBB로 생산본부의 이현태 부장, 천경호 차장, 구매본부의 정영옥 차장 등 3명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하성용 사장은 강평에서 "혁신 추진조직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혁신의 실행력과 2016년 중요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혁신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매경이코노미, 올해의 CEO에 하성용 사장 선정

매경이코노미가 선정한 올해의 CEO에 하성용 사장이 선정되었다. 하성용 사장은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11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름을 올린 CEO 중 가장 두드러지는 순위 상승이다. 재무순위도 지난해 26위에서 올해 14위로 상승하였으며 혁신경영 부문에서는 13위를 기록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CEO에서도 일반 제조업 부문 3위에 선정되었다.



필리핀 '국군의 날' 행사 비행(FA-50PH)

지난 12월 21일 필리핀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와 외빈으로 초청받은 하성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창군 80주년 AFP Anniversary 행사가 현지 앙헬레스(Angeles)에 위치한 클락(Clark) 기지에서 시행되었다. 행사 당일 필리핀 공군이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C-295, AW109, SF-260FH 항공기 및 당사에서 올해 11월 28일 운반한 FA-50PH #01, #02호기의 축하 비행이 있었으며, 행사 후에는 #01호기가 지상전시를 위해서 전시장으로 이동하였다. 당사의 필리핀 FA-50PH 사업은 지난해 3월 KAI가 개발한 FA-50PH 항공기 12대를 4억 2000만\$(약 4855억 원)에 필리핀 정부가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올해 초 2대를 납품한 후 2017년에 후속호기 10대가 전력화될 계획이다.



항공기 개발센터 준공식

12월 28일 우리 회사는 한국형 전투기(KF-X), 소형 무장/민수헬기(LAH/LCH) 등 항공우주분야 핵심개발사업을 수행할 항공기 개발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2014년 9월 착공해 1년여 만에 완공된 항공기 개발센터는 2만 4,512㎡의 터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항공기 설계,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험시설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발인력과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날 본사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하성용 사장을 비롯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송도근 사천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협력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성용 사장은 항공기 개발센터 준공 기념사를 통해 "항공기 개발센터는 향후 국내 항공우주산업 개발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KAI는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항공우주산업 비전인 2020년 생산 200억 달러 달성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I-인니, KF-X 공동개발 본 계약 최종서명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국방부 및 PTDI社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사업 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7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하성용 사장은 인니 국방부 팀블 시아안(Timbul Siahaan) 예비전력총국장과 인니 정부의 KF-X 개발비 20%를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인니 국영 항공업체 PTDI社의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사장과도 업무 분담계약을 완료했다. 이날 인니 국방부 회의장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KAI 하성용 사장, 조태영駐인니 대사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사업청 관계자, 인도네시아 국방부 리야미자드 리야쭈두(Ryamizard Ryacudu) 국방장관, PTDI社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사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KF-X 체계개발사업은 투자와 업무분담 등 공동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News Focus



1 산청사업장 금연교실 제1기 발대식

산청사업장 지원팀은 산정보건의료원과 협동으로 금연교실 제1기 발대식을 지난해 11월 23일 대교육장에서 실시하였다. 1기 신청인원은 협력사 4개 업체 및 KAI 인력 총 25명으로 2016년 5월 22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또 매주 보건소에서 방문 니코틴 검사 및 금연 지원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2 예콰도르 정보본부장 일행 회사 방문

지난 12월 2일 예콰도르 정보본부장, 항공작전국장, 주한 예콰도르 무관 일행이 ‘2015 첨단국방산업전’ 참석 및 방산기업 견학차 우리 회사를 내방하였다. 정보본부장 일행은 항공기 동, 조립동,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였고 기존 일정보다 길게 당사에 머무르며 KT-1을 비롯한 당사 항공기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3 운영지원 시스템 (K-LIS) 발전 세미나

지난 12월 16일 한국 공군 군수사령부 국산기 관리처장 외 실무 관계자와 KAI 지원체계실장 외 관련 팀장,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지원시스템(K-LIS) 발전 세미나를 2사업장에서 진행했다.

금번 수행된 운영지원시스템(K-LIS) 발전 세미나는 K-LIS 시스템 한국 공군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 요구도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후속지원사업본부가 자체 개발, 운영 중인 K-LIS 시스템 운영 현황과 공군 운영실적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수행하고 있는 운영RAM 분석, 소요예측분석 및 운영유지비용 분석에 대한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국산기 운영을 위해 개선·보완·발전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도출하였다.



4 풍물동호회 민예 봉사활동부문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

지난 12월 19일 사천에 위치한 요양복지시설인 성남두레복지원에서 우리 회사 풍물동호회인 ‘민예’가 봉사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민예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을 실천한 데 따른 보상으로 성남두레복지원 송년행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민예는 그간 성남두레복지원을 분기별로 정기방문해 사물놀이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 밖에도 사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합심원, 진주 복지원, 사천성당 바자회 공연,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마산교구 생명의 대행진 공연, 서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사천문화원 주최 행사, 진주 희망일자리 Job Talk & Concert, 경남예술축제 사천 대표 참여 등 지역사회와 나눔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20년을 맞은 민예는 초기 핵심인원과 신규 회원이 함께 아마추어의 실력을 뛰어넘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올해 경기도에서 열린 제7회 전국노동문화경연대회에서 최고 상인 금상을 받기도 했다.

5 소형무장헬기(LAH) 체계요구조건검토 & 체계기능검토회의 개최

소형무장헬기(LAH)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체계기능검토(SFR) 회의가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항공기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사청, 소요군, 학계, 기술관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109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6월 착수한 소형무장헬기 개발의 체계 성능 충족을 위한 노력 등의 검토 결과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6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개발 성공

2013년 7월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했던 수리온 기반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2015년 1월 19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후 8개월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함상 및 해상환경에서의 운용 적합성을 정부로부터 입증받았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는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 수리온 기반의 파생형 헬기로 함정과 해상에서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6년 상반기에 양산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성공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입체 고속 상륙작전능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작전반경이 보다 넓어지고 기동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병대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첨단장비가 추가 및 개조됐다. 보조연료탱크를 추가해 항속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 수리온 대비 2개가 추가된 총 6개의 연료탱크가 장착됐으며 지난 9월 포항에서 독도까지 왕복 3시간여 동안 총 524km의 비행에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수리온 기반의 파생형 헬기 개발을 통해 향후 20년간 1,000여 대(국내 400여 대, 해외 600여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7 제주 소방헬기, 국산 수리온으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사업’에 수리온이 선정, 지난 12월 30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2017년 12월까지 수리온 소방헬기 1대를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납품하게 된다. 제주도가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리온 소방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의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수색, 구조, 긴급환자 이송, 화재 진화, 수송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첨단 장비들이 추가 장착된다. 산소공급 장치, 심실제동기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장비(EMS Kit)를 비롯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외장형 호이스트(Hoist), 외부에서 임무수행 중인 구조요원과의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ICS(Inter Communication System), 비상 신호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탐색구조 방향 탐지기(SAR DF), 실내 냉방장치 등이 추가되며, 화재진압을 위해 배면 물탱크도 장착된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해상, 강풍 등 제주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임무수행과 인명구조, 장거리 환자 수송, 안정적 교육 및 후속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

사진으로 보는 T-X ROLL-OUT 행사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경남 사천 본사에서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이 열렸다. 2006년 개발한 다목적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최신화한 T-X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던 만큼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 를 빛냈다. 한편 T-X의 미국 수출물량 목표는 350대로, 총 7조 3,000억 원의 산업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리 한미림



12월 17일 공개된 T-X의 모습.



T-X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스텔스기에 맞게 조종석을 바꾸고 공중급유기 등을 장착해 미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모델이다.



T-X 개발 및 수출은 국내 항공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를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T-X 사업에 대해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증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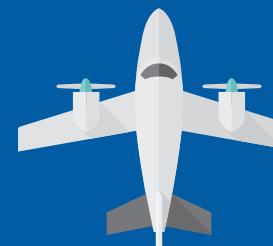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하성웅 사장.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T-X) 사업 개요

전체 사업규모

총 2,000대, 약 100조 원(한국 담당규모: 약 70조 원)
· 초기 물량: 350대('17년말 선정, 약 17조 원)
· 추가소요, 가상적기, 미해군 등 후속 물량: 약 650대 예상('25~'30년, 약 33조 원)
· 미국 외 제3국 시장 물량: 추가 약 1,000대 예상 ('30년~, 약 50조 원)

2,000대 1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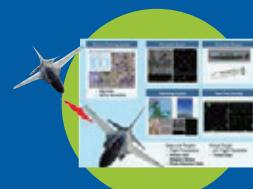
향후 일정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개조개발 내용



대화면 시현기(LAD)



가상훈련(ET)



공중급유장치

*美 공군이 요구하는 대화면 시현기(LAD, Large Area Display), 가상훈련(ET, Embedded Training), 공중급유장치 추가

주요 진행 경과

2009. 03 • 美 공군 RFI 1차 발행
2009. 08 • 美 공군 RFI 2차 발행
2010. 09 • 美 공군 1차 T-50 실사(광주기지/ KAI)
2014. 07 • 美 공군 2차 한국공군 운영기지 실사(예천기지/ KAI)
2015. 02 • 美 공군 2016년 예산안 의회 제출
※ 미 정부 2016년 예산안
· T-X 체계개발사업: 6.4억 불('16~'20년 중기계획), 총사업비 약 10억 불
· 가상적기 개발사업: 0.4억 불('18~'20년 중기계획), 총사업비 2.2억 불
T-X 사업 美 공군 요구도, 국방부 승인
2015. 03 • 美 공군, 핵심요구성능과 기타체계요소 초안 공개
2015. 12 •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 개최

사업 파급효과



사업 기대효과



항공기 분고장인 미국 수출 성공 시
국가 항공산업 발전 및 국격 상승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 제패 가능
· T-50의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 후속지원능력의 재입
증 통해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의 베스트셀
러로 입지 구축



국가 핵심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역할
모델 제시
·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및 기술발전 선순환 진입



미국 기본소요 350대 외에 가상적기, 美 해군 등 추
가 후속물량 등 1,000대 및 제3국 추가 1,000대 고려
시 2,000대까지 수출 전망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 먹거리 꾸준히 창출해 나가야

지난 12월 31일 하성용 사장이 직원들과 좌담회를 마련해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기업 문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성용 사장은 좌담회에서 앞으로 KAI의 발전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 먹거리 사업의 꾸준한 개발과 임직원간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안종근



하성용 사장 먼저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데 올해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워낙 많이 있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바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직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응문 부장 개인적으로 사장님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사장님의 진솔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하성용 사장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경북 영천으로 이사해 대구와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음식은 크게 가리는 것이 없어요. 회도 좋아하고 고기도 잘 먹고요. 건강 관리는 매일 아침 등산으로 대신합니다. 잠을 덜 자더라도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년간 거의 매일 산에 오르고 있지요. 임직원에게도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



황승태 팀장 취임 이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성용 사장 사람에게 운명이 있듯 기업도 타이밍이 있고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항공산업이 1970년대 초반 태동했고 그로부터 45년간 계속 운영하였으나 진정한 '항공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KAI로 터바꿈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성과가 KAI 설립 이후 만든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2015년 한 해 동안



원들도 파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성용 사장 파격이라기보다는 효율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초일류 기업들의 추세가 그렇지요. 지난해 전략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도 이제는 철저히 성과 보상제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맹렬하게 달리는 중입니다. 수주는 달성했지만, 매출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매년 성장을 25% 유지해야 하고 2016년에는 최소 2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 부문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 부문 전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KF-X 사업은 단위가 워낙 커서 사업관리를 잘하면 먹거리 창출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항공기를 수출하

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의 구성과 함께 후속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케팅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수출 등 실제 하늘을 날고 있는 우리 회사의 항공기가 480대인데 2020년이 되면 800대, 2025년이 되면 1,500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S 부문을 강화해서 신속한 후속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능 개량도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이죠. 국내 사업본부는 효과적인 물량 확보와 관리를 위해 훌어져 있던 조직을 통합하였습니다.

후배들의 미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찾은 후에도 원가 완성을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룬 성과도 성과이지만 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으러 나서는 것이 CEO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이 제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2~3년 후에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도 그러한 의미에서 실행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T-X 사업



최안나 과장 T-X 롤아웃 행사를 통해 미국수출사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경합이 예상되는 업체, 기종 및 우리의 현 수준,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성용 사장 대전제는 T-X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만들 어가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T-X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미국에 1,000대를 수출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국격까지 높아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록히드마틴社 대표와도 수시로 연락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일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수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군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록히드마틴社 대표와도 만나 MOU 체결을 했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합이 예상되는 업체 중 미국의 스콜피온스 등은 파워 면에서는 G(Gravity, 중력가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방산 업체들과의 경합이 예상되지만, 10년 이상의 개발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 경쟁력인 데요. 생산 개발 단계에서 원가 경쟁력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품질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 봄부터 바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기업문화



김신라 기술원 한 매체에서 '올해의 CEO'에 선정되었는데 소감과 함께 앞으로 기업문화 키워드 중 '소통' 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십시오.

하성용 사장 단일기업 CEO라는 게 사실 입지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CEO에 제가 상위권에 선정됐다니 그저 놀랄 따름이었지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KAI가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 다져진 기업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향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게 되면 세계 항공기업 랭킹 17위쯤 될 것이고 2030년에 20조 원을 달성하면 순수 항공기 제조업체로는 5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뤄나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업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1등으로 만든 것은 다른 아닌 기업문화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강조한 성과 보상제가 바로 그것이죠. 저 또한 성과에 대해서 즉시 평가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기업이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지난해 기업문화로 소통을 강조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먼저 인사하는 직원이 늘었더군요. 또 예전에는 표정이 많이 굳어있었는데 요즘엔 표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진 직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업문화는 말로만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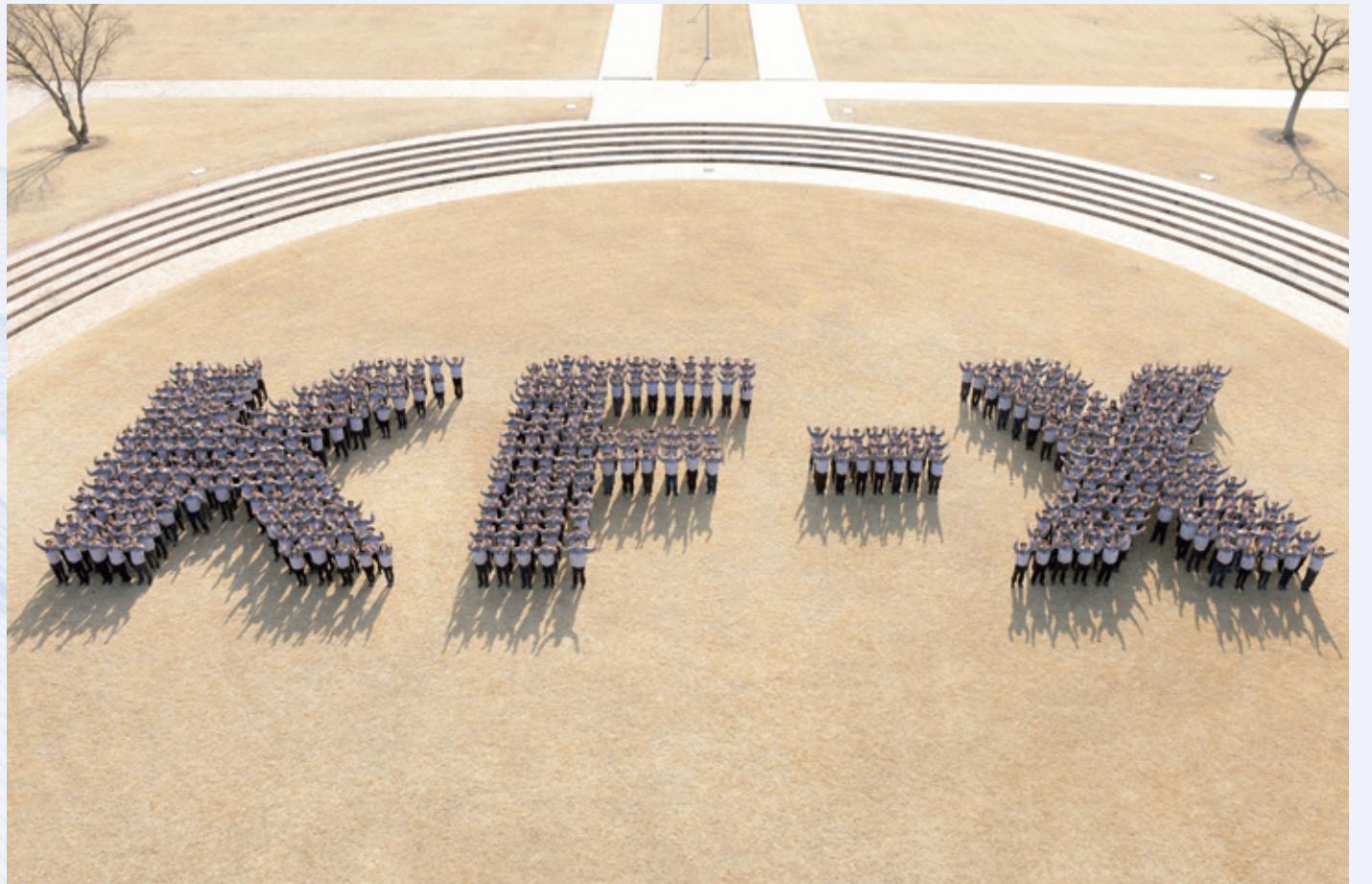
는 될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교감이 잘돼야 기업의 방향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광영 기술원 사장님께서 신입사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성용 사장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굳은

의지와 도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엄청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세계를 무대로 하는 넓은 시장이니만큼 근시안적인 시선에 둬 있지 말고 큰 뜻과 넓은 시선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합니다.





2016年, 국내 항공산업 선봉장 역할 기대



글 김재한 <월간항공> 편집장

多事多難

말 그대로 지난 2015년이야말로 항공업계는 많은 일과 어려움으로 뜨겁게 달궈진 한 해였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비롯해 KF-16 전투기 개량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 굵직한 주요 항공기 사업들이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건국 이래 최대 연구개발사업인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특히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4개 핵심장비에 대한 체계통합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 사업에 대한 재검토까지 거론됐을 정도다.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

다행히 지난해 12월 28일, 뜨거운 논란 속에 KF-X 체계개발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14년 만이다. 그 사이 7번의 타당성 검토와 단발·쌍발 엔진 논쟁, 핵심기술 이전 문제 등으로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렇게 기약 없던 체계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소식에 우선 공군이 기습을 쓸어내렸다.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하루빨리 신형 전투기로 대체해 전력공백을 메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함 가운데 체계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우리 공군은 오는 2026년 후반기부터 우리 영공을 지킬 자주적인 공중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물론 국내 항공업계도 이번 체계개발 착수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KF-X 사업에는 항공기 설계·제작과 관련해 약 200여 개의 국내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KF-X 개발과정에서 90여 개의 품목을 국산화하고, 해외구매 품목에 대한 추가 국산화 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어서 국내 항공산업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KF-X 사업이 성공하면 경제효과는 약 90조 원, 일자리도 약 30만 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욱이 수출을 포함해 1,000대 이상을 판매하면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2~3배가 증가한다고 하니 국내 항공업계의 기대가 큰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KF-X 사업과 함께 소형 민수헬기와 무장헬기를 개발하는 LAH/LCH 사업도 국내 항공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알려진 총 개발비만 해도 1조 6천억 원, 1조 3천억 원을 들인 한국형기동헬기(KHP) 사업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LAH/LCH 사업은 KHP 사업과는 달리 민수헬기와 군수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 이러한 개발방식은 세계 최초다. 현재 체계개발업체인 KAI는 물론 해외협력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조차도 큰 도전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 만큼 이번 LAH/LCH 사업에는 세계 선도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를 비롯해 많은 국내 협력업체들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역할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LAH/LCH 개발 후 국내에서 독점 생산된다는 것이다. 에어



버스 헬리콥터스가 모든 생산을 KAI에 이관했기 때문이다. 향후 국산헬기의 본격적인 세계 헬기시장 진출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물론 앞서 개발된 수리온도 현재 국내시장에서 파생형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활발한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이는 LAH/LCH 개발과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훌륭한 자양분이다. 그런 만큼 KAI는 단순히 체계개발업체로서의 역할보다 국내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셈이다.

항공기 개발센터로 더 강해지는 KAI

이처럼 굵직한 항공기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KAI도 이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경남 사천 본사에 건립한 '항공기 개발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24,512m²에 달하는 규모에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 등 항공기 복합설계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고 한다.

특히 KAI는 항공기 개발센터를 통해 항공기 설계, 항공전자, 비행제어, 위성/무인기 시험 인프라 등 주요 개발시설과 자원을 통합해 개발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향후 추진될 사업들을 이끌 두뇌인 셈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항공 선진국에도 견줄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KF-X 사업이나 LAH/LCH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출발선에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당연히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항공기 제작사들도 항공기 개발을 쉽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그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예측하고,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개발역량이고 노하우다. KF-X, LAH/LCH 등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을 대폭 높여줄 이들 두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도 KAI가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사업에서 보여준 개발역량과 노하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일동맹 위에 재건한 제국주의의 칼날

일본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일본 항공자위대의 두 촉 F-15와 F-2A

'현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 그려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 그려면서도 주변 3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나라'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빠진 나라' 그려면서도 방위비를 오히려 크게 늘려온 나라'. 이 모순투성이인 설명들은 오늘날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패망한 국가로 전락했던 일본은 냉전 시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군사력을 착실히 축적해왔다. 특히 항공력에서만큼은 언제나 최고 수준을 추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증강된 군사력은 자위대를 규정하는 법이나 다름없는 평화헌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관련법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손질됐다.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 속에 법적 족쇄를 하나하나 벗어던지던 일본은 최근 주변국들과 전방위적인 영토분쟁을 촉발시키며 동북아시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이미 항공력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군사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흔들리는 평화헌법 9조

오늘날 일본이 재무장을 넘어 군사대국화된 데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의 자의적 팽창이라기보다는 냉전-탈냉전 시대로 지나오면서 미국의 전략에 의해 키워진 모양새가 강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로부터 NATO를 중심으로 유럽의 방어에 집중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일본을 냉전체제에 끌어들이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했다. 그만큼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 9조(1954년 제정)는 냉전 시작과 함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속도의 문제였을 뿐 역사의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일본에 재기의 기회였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방위와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고 냉전 기간 내내 경제성장에 집중해온 결과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톱이 날카로워질수록 할퀴고 싶은 욕망은 커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1976년 처음으로 발표한 '방위대강'을 시작으로 이후 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군사무기들을 높은 수준으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입하는 무기목록은 최고가 수준의 최신형 무기들로 채워졌고,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이들을 고집스럽게 면허생산함으로써 국내 군사기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군사력이 증강될수록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자위의 수준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고도화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일본은 딜레마에 빠지는 듯했다. 그런데 때마침 1976년 9월 6일 망명을 목적으로 일본영공에 들어온 소련의 MiG-25를 당시 방공레이더와 요격에 나섰던 당시 주력전투기 F-4EJ가 탐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적기가 영공을 뚫고 영토 내의 비행장에 착륙하기 전까지 아무 손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항공자위대의 증강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항공자위대 증강의 신호탄이자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결정적 초석이 되었다.

특히 요격능력 극대화를 위해 1981년부터 F-15라는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그다

지 눈에 띌 것 없던 항공자위대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F-15는 1997년까지 복좌형을 포함해 무려 226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도입됐다. 더구나 이들 물량 중 미국에서 직도입된 14대를 제외한 212대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함으로써 후에 일본이 자체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미국이 일본의 최첨단 기술 공유를 강제하기 위해 공동개발) 최첨단의 F-2 전투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자위권행사에 대한 자기 억제적 의지는 1991년 걸프전 당시 파병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따라 일체의 파병 없이 다국적군에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전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유지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에 강한 비판을 받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세계적 요구이며 자위대가 더는 본토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자각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인식한 일본은 1991년 4월 6척의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해 파병금지의 원칙을 깨뜨렸고, 이듬해에는 'PKO 법안'을 통과시켜 해외파병의 법적 제한을 풀었다. 일본은 PKO 법안을 계기로 좀 더 과감하게 자위대의 법적 족쇄를 하나둘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끽인 혹은 지원을 등에 업고 1995년 '신방위대강'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미·일 신(新) 가이드라인 제정, 1998년 주변사태법 제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무력행사의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7년에는 또 한 번 자위대의 큰 도약이 이뤄지는데,

일본의 F-15 도입 시점이 얼마나 충격적일 만큼 이른 시기였느냐 하면, 미 공군에 F-15가 배치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고 F-15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국가는 미국의 최우방 이스라엘뿐이었던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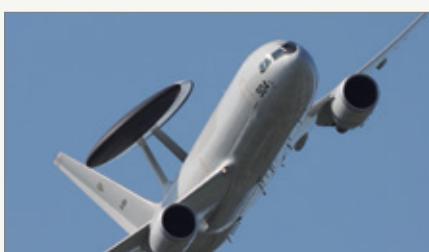
끊임없는 증강으로의 항공전력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자위대의 항공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자위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방위성 승격을 두고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탈피해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공교롭게도 방위성 승격을 자화자찬하던 당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현직 총리로 다시 돌아온 바 있다. 오늘날 아베의 밀어붙이기식 평화헌법 개정 드라이브는 자위대가 법적으로 갖는 활동범위와 무력사용의 원칙을 매우 단력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로써 오늘날 평화헌법 9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을 비롯하여 '비군사대국화' '해외파병 금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시 자국침략으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 등 자위대의 역할을 제한하는 관련법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멈춰있는 MiG-25. 벨енко 중위가 몰고 온 MiG-25가 착륙지점을 찾기 위해 훗카이도 상공을 계속 배회하는 동안에도 당시 일본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형편없이 취약한 방공능력을 자각하게 한 이 사건은 결국 항공자위대를 최강의 항공기들로 중무장시키는 촉매가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에 따른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 소요에 따라 2015년 10월 미국의 차세대 공중급유수송기로 개발 중인 KC-46A 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자위대의 항공전력은 P-3C와 SH-60 계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여 해상초계 및 대잠전을 핵심임무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임무로는 MH-53E와 최근부터 장비를 시작한 최신형 MCH-101로 소해전(해상 기뢰제거작전)을 수행한다. 탐색구조임무도 해상자위대 항공전력의 핵심 임무 중 하나다.



1998년부터 4대가 도입된 E-767은 항공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아심을 고스란히 담아낸 상징적인 기체다. E-3와 같이 B707 기반이 아닌 50% 가까이 늘어난 기체용적을 가지는 B767 기반의 E-767은 개량 및 신형장비탑재 잠재력이 매우 높아서 최근까지도 신형 중앙컴퓨터 교체와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 등의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항공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징이 E-767이라면,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바로 2008년부터 4대가 도입된 KC-767J 공중급유기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는 일본 본토로부터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만큼 KC-767J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E-767과 같은 B767 기반의 기체로서 정비 및 군수지원의 일원화를 통해 유지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이끌어냈다. 3대가 추가로 도입되는 KC-46A 공중급유기 역시 B767 기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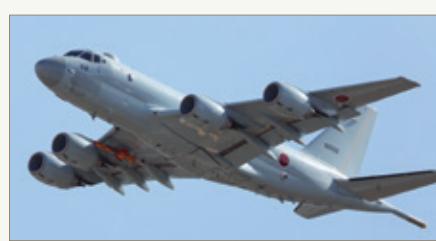
자위대의 각 기종은 저마다 자위의 수준을 넘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평화헌법 무력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입 및 개발과정의 결과물로서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나 지면관계상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개 기종만 간단히 추가로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일본 자위대 주요기종 현황

분류	기종	용도	일선운용 대수	추가주문 대수
항공 자위대	F-15J	전투기	153	
	F-15DJ	훈련기	45	
	F-2A	전투/지원기	63	
	F-2B	훈련기	15	
	T-4	훈련기	203	
	F-4EJ/RF-4	전투/지원기/정찰기	71	
	F-35A	전투/지원기	-	42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	
	E-2C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3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4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	-	3
	KC-767J	공중급유수송기	4	
	KC-46A	공중급유수송기		3
	C-1	수송기	26	
	C-2	수송기	2	20
	C-130H	수송기	15	
	UH-60J	다목적헬기	35	40
	CH-47J	수송헬기	16	
해상 자위대	P-3C	해상초계/대잠기	82	
	EP-3	전자전기	4	
	P-1	해상초계/대잠기	7	65+
	SH-60J/K	해상작전헬기	116	
	MH-53E	소해헬기	10	
	CH/MCH-101	수송/소해헬기	7	7
	AH-1S	공격헬기	74	
	AH-64D	공격헬기	10	1
	CH-47J	수송헬기	58	2
	OH-1	다목적헬기	38	112
	UH-1H/J	다목적헬기	153	
	UH-60JA	다목적헬기	30	
	V-22B	다목적틸트로터기	-	17

*진한글씨는 최근 확득이 결정되었거나 신규배치 중인 플랫폼 (Source: Flightglobal World Air Forces Data Base 2015)

일본판 포세이돈 P-1



외부 무장으로 ASM-1 대함미사일과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한 P-1. 성능적으로 P-8A와 견줄 만큼 고성능이며 해상자위대 항공력의 미래를 대변하는 기체다.

P-1은 해상자위대가 신방위대강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기동적 자위력’ 구현의 핵심플랫폼이다. 일본이 자체개발한 P-1은 대량으로 보유한 P-3C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최근 배치 및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1은 기체크기나 성능 면에서 세계 최강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필적 한다. 최대이륙중량이 80톤급으로 85톤의 P-8A 와 유사하며 순항속도는 833km/h로 오히려 815km/h의 P-8A보다도 빠르다. 8개의 외부무

장 장착대에 AGM-84 하푼 대함미사일 등 9톤 이상의 무장과 소노부이 70개 이상을 내장탑재 하는 등 탑재력 또한 넉넉하다. 특히 끊임없이 국제분쟁화 하려 하는 독도 문제에서 군사적 접근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할 기종이 바로 P-1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P-1은 매우 높은 기체가격에도 불구하고 P-3C 전력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많은 수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된다.

장기적 전력강화 의지를 담은 F-35 도입



노후화 및 성능미달로 대체가 시급한 F-4EJ를 대체하기 위해 F-35A 42대 도입을 결정한 일본은 초도 분으로 4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나고야에 2017년까지 건설되는 공장에서 최종조립생산(FACO: Final Assembly Check-Out: 면허생산과 비교해 한 단계 아래 수준의 직접생산 및 공정개입 생산)할 예정이다.

일본은 기술유출을 우려해 일본의 작업 분담률을 높이길 거부하는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본 기업들의 분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끈질긴 협상을 벌였다. 불과 38대라는 소수만 생산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F-35의 기체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일본기업의 분담률을 높일수록 대당 가격은 더더욱 날뛰기하게 될 것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5대의 예비 엔진과 전자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예비부품을 포함 대당 140억 엔(한화 1,350억 원) 계약에 합의했다. 생산조건으로는 미쓰비시 중공업(주익/랜딩기어/후방동체 제작, 기체 최종 조립), 미쓰비시 전기(레이더, EO-DAS), IHI 중공업(F135 엔진 부품 제작, 최종조립)이 록히드

마틴의 파트너로 참가해 직접 부품 자체 생산율 10%를 이끌어냈고, 총 작업 분담률 40%를 끝내 관철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호주와 함께 F-35의 동아시아 MRO 거점을 유치해 기체 및 엔진의 중정비를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면허생산이 아닌 FACO 수준의 생산조건은 크게 의미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기체는 물론 엔진의 부품제작 공정에 자국 업체가 참여하는 등 40%에 이르는 적극적인 분담률을 이끌어 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 MRO 거점 유치에 따른 장기적인 유지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단히 훌륭한 조건이다. 게다가 앞으로 F-35A의 추가도입 및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헬기기축 함(사실상 항모) 탑재용 F-35B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전력강화 및 군사기술 육성의 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계약이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JAPAN

Travel tip

온천여행 일본 온천은 긴 역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숙소인 료칸, 눈과 입으로 즐기는 가이세키 요리(연회용 요리) 등으로 관광객을 끌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료칸 객실 수가 10개 이하인 곳을 정하거나 옛 시설이 불편다면 현대 감각을 입힌 모던한 료칸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료칸 특유의 다다미방 체험도 좋겠지만 3, 4명의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침대 이용을 원한다면 다다미방과 침대가 함께 제공되는 화양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사카와 고베 인근 지역의 온천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도시여행 온천의 여유로움보다 도시의 다이내믹함을 즐기고 싶다면 도쿄와 주변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보자. 다양한 전시와 공연, 근사한 도쿄의 전망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롯폰기힐스,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복사판으로 갖가지 테마의 놀이시설과 뮤지컬, 퍼레이드 등 화려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디즈니랜드, 희러한 도쿄에서 일본 전통의 색을 짐작하고 있는 아사쿠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롯폰기힐스 지하철 하이비선 롯폰기역 1C번 출구 앞. 또는 지하철 도쿄에 오에도선 롯폰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아사쿠사 지하철 긴자·도쿄에이아사쿠사선 아사쿠사역 하차
디즈니랜드 게이요선 마이하마역 하차/ disneyland.disney.go.com





마음
한 조각을
나누는 것,

배려

배려는 타인에 대한 이해적 관계방식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배려라는 것은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뒷사람을 위해 출입문을 잡고 기다려준다든지, 식사시간 테이블 위에 사람 수만큼 수저를 챙겨 올려놓는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 준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직장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입니다. 동료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의 주장과 고집만이 남고, 이는 결국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듯 동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쯤은 내가 아닌 동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제30대 대통령(1923~1929)인 캘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계신가요. 진정한 존경은 자신이 진심으로 베푼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소한 배려가 모여 업무의 원동력이 되고 조직의 힘이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별 다방(?)'이 전 세계인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의 성장이 멈출 줄 모른다. 2015년 12월 현재,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장 수는 2만 3132개. 2014년 매출은 약 164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했다. 2015년 매출은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1999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첫 매장을 문을 열고서 현재 매장 수만 800곳이 넘는다. 2014년 매출은 6171억 원.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확장한 이디야, 카페베네 등 국내 토종 브랜드의 추격이 거셌지만, 2위 업체(엔제리너스)와 매출에서만 여섯 배 차이다. 도대체 전 세계는 왜 스타벅스에 열광하는 것일까?

글 강양구 일러스트 신미래

스타벅스, 배려의 아이콘



스타벅스, 비판에 시달리다

애초 스타벅스는 1972년 미국 시애틀의 커피 상점에서 출발했다. 이름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커피 애호가 스타벅(Starbuck)에서 착안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컵에 담아 마시는 커피는 판매하지 않고 커피 재료 등만 팔았다. 조그만 커피 상점에 불과했던 스타벅스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것은 1982년 하워드 숄츠가 합류하면서부터다.

주방용품 회사의 중견간부로 일하던 숄츠는 스타벅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1986년에 아예 시애틀의 6개 매장 등을 380만 달러(약 38억 원)에 인수했다. 숄츠의 스타벅스는 양질의 원료로 만든 고급 커피를 '테이크아웃(Take-out)' 판매 전략을 취하며 대성공을 거둔다. 유럽과 달리 카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1987년 6개 매장 100명의 직원을 가진 작은 기업으로 출발한 지 15년 만에 전 세계 2만 3132개 매장 19만 1000명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심장 뉴욕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스타벅스는 여러 차례 불매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저항에 맞닥뜨렸다. 스타벅스 커피에 섞는 우유가 유전자 조작된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한 젖소로부터 생산된다는 비판,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다는 비판, 마을 고유의 상권을 파괴한다는 비판 등등.

이런 비판을 의식한 탓일까? 스타벅스는 어떤 기업보다도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자-농민-지역 사회를 감동시키기

스타벅스는 미국의 직원들이 4년 동안 애리조나 대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비를 제공하고 있다. 애초 스타벅스는 기존에 주당 최소 20시간 일하는 직원에 한해 애리조나 대학교 3학년에 등록할 경우 2년간 학비를 지원해 줬으나, 2015년부터 파트타임, 풀타임 근무자 누구나 학자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도 대학 4년 전체로 확대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전체 직원 약 20만 명 가운데 70%가량이 대학 학사 학위가 없다며 "직원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돋겠다"고 학비 지원의 배경을 밝혔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며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직원은 졸업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스타벅스가 집안 형편 등의 사정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친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1990년대부터 커피나무 재배를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난한 나라의 원주민을 쟁취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 왔다. 스타벅스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2000년부터 '공정 무역(Fair Trade)'을 통해 공급되는 커피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는 세계 최대의 공정 무역 인증 커피 구매업체가 되었다.

공정 무역 커피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좋은 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같은 현장 노동 조건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 받은 커피만 시장 가격보다 값은 더 쳐서 구매한다.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인증 마크(FAIRTRADE)가 찍힌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은 다양한 모습의 커피 짜끼기 재활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스타벅스에서 시작한 커피 짜끼기 재활용은 현재 전 세계로 퍼졌다. 스타벅스는 각 지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커피 짜끼기를 모아서 특수 처리한 후 식물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 퇴비, 배양토 등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나눠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30만 평에 달하는 경기도 농가에 커피 퇴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에도 앞장섰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14년 한 해 발생한 약 4000톤의 커피 짜끼기 가운데 4%에 해당하는 약 160톤을 재활용했으나, 2015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약 2000톤을 재활용하고, 2018년까지 커피 짜끼기 자원 재활용을 10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쓰레기 재활용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배려의 아이콘

스타벅스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불편한 비판에 귀를 닫지 않고 경청했다. 그리고 스타벅스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들을 배려하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스타벅스의 이런 노력을 두고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분칠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으로 보는 이도 있다. 앞으로 스타벅스가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별씨 "스타벅스는 없는" 매력을 내세우며 다양한 지역 브랜드 커피 체인이 세계 곳곳에서 스타벅스를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배려를 잊지 않는 한 당분간 이 기업의 성공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스타벅스는 전 세계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얻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 농민 또 지금 세대를 넘어서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기로 한 것이다.



정재근 조장은 F-16 면허생산 사업 MTD 최종조립 기능 점검 부서에서 작업자로 업무를 시작하여 FA-50 생산까지 조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동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기체와 전자를 넘나드는 자식으로 조원들의 업무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생산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정재근 조장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 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더욱이 시스템 점검 작업은 조원들과 팀을 이뤄 진행하므로 도중에 차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재근 조장의 역할이 중요할 터.

“시스템 점검을 하다 보니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감이 오고, 움직이는 각도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척 보기만 해도 상태를 아는 것 처럼요. 이 정도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계통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가 아는 부분만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넓게 볼 줄 알아야 하므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조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다 보니 혹여 조원들이 조장에 대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잠시, 정재근 조장은 조원들이 스스로 작업을 진행하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베풀목의 역할을 자처한다. 때문에 팀 워크 또한 그 어느 팀보다 돋보이다는 것. 후배들에게 성장 할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는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앞장서서 나아가고자 한다. T-5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KF-X 개발을 꿈꾼다는 정재근 조장. 그의 또 다른 내일이 기다려진다.

66

항공기가 실제로 구동되기까지 사람도, 항공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후배들이 더 멀리 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틔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99

멀리 볼 수 있도록 길을 틔주는 역할

35호

항공기생산팀2직
정재근 조장

글 노조룡 사진 안종근



프로필

직급	조장
입사	1995년
경력	기체조립 경력 3년 항공기 최종조립 및 시스템 점검 18년
주업무	항공기 조립 및 기능 점검

‘함께’라는 진정성이 가진 힘

36호

LCH체계종합팀
김선우 수석



프로필

직급	수석
입사	1995년
경력	T-50 유압계통 10년, KHP 유압계통 6년, LAH 유압계통 1년, 무인기체계 2년, LCH 체계 1년
주업무	체계 종합

김선우 수석은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항공기였던 T-50의 개발 초기부터 항공전자 개발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LAH/LCH의 체계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LCH 사업과 관련 한 다양한 문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LCH가 일정 내 개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계업무란 개발 전체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협조로 이루어져 서로 맞춰가며 진행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하나하나 조율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체계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김선우 수석은 늘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날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려는 습관과 마음가짐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체계 업무의 대부분이 해외업체와 교류하는 부분이 많아 영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김선우 수석은 출근길과 주말에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일과도 빼놓지 않는다.

“대부분 해외업체와 일하는 부분이 많아서 영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영어 청취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기도 하고, 주말에 초등학생인 아이의 영어 숙제를 봐주면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우 수석이 처음 입사하여 T-50을 개발할 당시엔 기초 자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들이 성장할 때라고 강조한다. 여러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라는 생각으로 공유하며 이끌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처럼 좋은 토양 아래 KAI 항공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6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에는 항공기 개발에 관한 자료가 없었지만 우리 후배들은 더욱 빠르게 습득하며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9





2015 세계방산기업 순위



무기를 가장 많이 생산한 기업은 북미와 서유럽 기업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69개 기업이 북미와 서유럽지역 기업이며 무기 판매액 비중은 2012년 85.3%에서 줄었지만 2013년에는 84.2%에 이른다. 지난 11월 19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5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무기생업체 중 미국 기업의 점유율은 56%, 영국 11%, 러시아 8%, 프랑스 6% 순이다. 한국 기업은 세계 100대 무기 생업체에 5개 업체가 포함됐다. 세계 1위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무기판매액은 2011년 362억 달러, 2012년 360억 달러에서 2013년 355억 달러를 기록했다. 록히드마틴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78%에 달하며 순이익은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방산업체 2위는 미국의 보잉사다. 보잉은 2012년 30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3년 307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국내 기업 중에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60위), LIG넥스원(66위), 한화테크원(77위), (주)한화(85위), 현대위아(87위)이다.



화물용 하이브리드 비행선 개발 청신호



최근 항공 관련 해외매체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화물용 하이브리드 비행선 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상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그 안을 헬륨으로 가득 채우고 하늘을 나는 비행선의 이름은 LMH1이다. 과거 헬륨 비행선의 외관을 연상시키는 LMH1은 속도와 기능, 안전성 등 모든 것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LMH1의 속도는 자체 엔진 장착으로 '풍선'치고는 매우 빠른 60노트(시속 111km)로 날아갈 수 있다. 또한 비행선은 약 20톤의 화물을 싣고 무려 2,200km의 범위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대당 가격은 4000만 달러(463억 원)로 싼 편은 아니지만, 회사 측이 20년간 공들여 이 비행선을 개발하는 이유가 있다. LMH1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으로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7배 이상은 싼 수준이다. 특히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LMH1은 비행선 크기의 착륙공간만 있으면 강, 사막 등 어디든 착륙이 가능해 저렴한 항공 수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3년 뒤 달나라는 아시아의 각축장

2018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달 탐사 경쟁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를 쏘아 올린 인도는 2018년 '찬드라얀 2호' 발사를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 달에 시험 궤도선을 보낸다. 일본은 2007년 달 궤도선인 '가구야'를 발사한 이후 달 탐사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우즈메(UZUME)'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찬드라얀 1호'를 달에 보내 물과 얼음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도는 단 한 번의 시도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해 이른바 '원 샷 원 킬'의 놀라운 역량을 드러내며 주목받았다. 달 탐사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更是 2018년 시험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20년 한국형 발사체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실어 동시에 쓸 계획이다. 현재 구상 중인 궤도선과 착륙선은 각각 550kg으로 해외 탐사선의 절반 정도다. 각국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2018년경 달은 한국과 일본, 인도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놀라운 배트맨 비행기, 2017년 일반 판매

배트맨이 사용하는 배트 비행기가 현실이 됐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신생 항공기 제작업체 코발트에어(Cobalt Air)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디자인에 초점을 둔 개인용 항공기 제작업체로서 이날 사전에 주문받은 Co50 밸키리와 밸키리-X를 공개했다. 코발트에어는 시제품을 시험 비행 중이며 오는 2017년이면 정식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승인 아래 비행기를 판매하게 된다. 이들 비행기에는 다이얼이나 게이지, 스위치 등이 없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채택되고 있다. 3개의 아이패드 스타일 스크린은 조종사와 승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밸키리는 350마력의 엔진을 탑재해 최대속도가 동급 기종 가운데 가장 빠른 시속 300마일(48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밸키리X는 아직 시험용 기체로 미국에서만 구입 할 수 있다. 반면 Co50 밸키리는 완전히 인증을 마침에 따라 전 세계에 판매될 전망이다.



경남은행 - 경상남도, 항공우주 등 핵심 전략산업 금융지원 협약

BNK금융그룹 경남은행과 경상남도는 지역 내 신성장동력산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17일 밝혔다. 손교덕 은행장은 11월 17일 오전 경상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 금융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 한도 5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클러스터 기업대출은 기계융합소재산업·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항공우주산업·첨단나노융합산업·조선해양플랜트산업·항노화바이오산업 등 경남미래 50년 핵심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최대 2.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여기에 클러스터 기업대출 지원 대상에는 추가로 핵심전략산업 중견·대기업에 매출비중 3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기업)로 등록된 기업체도 포함된다.



진주·사천 항공 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대출(진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7일 KDI 김준경 원장과의 통화에서 "진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KDI도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9일 LH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수행기관인 KDI에 제출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 중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복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KDI의 여력 부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완료가 불투명한 형편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16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지면 승인 후 201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에着手하게 된다.

권오성 상무 가족의
특별한 일출 여행

새해,

첫 행복을 나누다

누구나 새해의 첫날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한다. 보신각으로 제야의 종을 보러 간다든지, 산이나 바다에서 일출을 감상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권오성 상무 역시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시작하는 때, 가족들과 일출을 보며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오성 상무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이 삼천포 일출 유람선. 조금은 북적이고 소란스런 날이었지만 차가운 바다 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병신년(丙申年) 첫해를 보기 위해 삼천포항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글 한미림 사진 안종근



특별했던 2015년,
기대되는 2016년

새해 첫날 새벽 5시. 삼천포항은 배 위에서 일출을 감상하려는 사람들로 제법 북적였다. 뉴스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큰 추위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새벽이슬을 머금은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6시 출항을 앞둔 배 앞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들어서 있었다. 저만치 보이는 커다란 덩치의 유람선 앞으로 빼곡히 찬 사람들의 약자지껄한 수다가 한창이다. 권오성 상무 부부에겐 이 모두가 낯선 광경이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과 딸 역시 마찬가지. 2000년 이후론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다, 특히 바다에서 일출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단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동안은 서로 이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미네소타주립대학을 다니던 딸이 올해 졸업하고 취업에도 성공했고 아들도 이제 텍사스주립대학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내의 직장에도 좋은 일이 생겼고요. 작지만 의미 있는 경사들이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더 행복한 2016년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권오성 상무에게도 2015년은 잊지 못할 한 해다. 공군에서 일명 ‘투스타’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KAI에 몸담은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CS 본부에서 이라크 CLS사업을 총괄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예정이다.

“위험지역인 이라크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성공을 기도하면서 일출을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지만 어느 곳이든 개척자는 꼭 필요한 법이지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선택을 믿고 따라와 준 가족들이 그저 고맙고 든든할 따름이죠.”

그렇다면 처음 이라크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아내 고건희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단번에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동안 지켜봐 온 남편은 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이라크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결심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강단 있게 잘 해내리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했죠.(웃음)”



KAI의 주 활동무대인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다와 땅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기분이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북적거리긴 했지만
가족들과 앞으로 추억할만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더 기분이 좋아요.

와!
첫 해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나아가는 동안 권오성 상무 가족은 서로 밀린 얘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딸 인 권빛샘 씨는 북적거리는 배 안의 광경이 꽤 신기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일출을 보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 기대되고요.”

그런 와중에 기방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꺼내 가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낸다. 권오성 상무 뒤로는 여전히 깜깜한 공기에 뒤덮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게 동쪽인지 남쪽인지 도 모른 채 그저 배가 앞으로 가나보다 하겠지만, 평생을 하늘 위에서 보낸 권오성 상무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나침반’이나 다름없다. 해를 잘 볼 수 있는 방향부터 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조금 있으면 뱃머리를 돌릴 거라는 예측까지. 가족들은 이런 권오성 상무의 모습이 익숙하다는 반응이다.

“남편이 평소에 지도를 좋아해요. 버스를 탈 때에도 해가 들 자리, 안 들 자리를 구분해서 앉죠. 저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졌는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웃음)”

담소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해 들 시간이 가까워져 왔다. 일출 시각은 7시 32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저기 일사불란하게 이어졌다. 얼마쯤 지났을까. 광활한 바다 위에서 엔진소리를 거둔 유람선 저편으로 병신년의 첫 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권오성 상무 가족들도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권오성 상무 가족에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낌달랐을 테고, 각자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다시 떨어져 지내야 하기에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생한 햇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날빛, ‘태양의 샘’인 빛샘. 권오성 상무 부부가 고심을 다해 지었다는 자녀들의 이름만큼이나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빛나는 가족들이 되길, 그러한 2016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삼천포 유람선을 이용하려면?

삼천포항에서 출발하는 일출 유람선은 매년 1월 1일에만 운행한다. 일반 유람선의 경우 비수기인 겨울은 오후 2시, 3월부터 시작하는 성수기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운행한다.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비용은 성인 기준 27,000원이다.

주소 경남 사천시 대방동 765-3
전화 055-835-0172



“해가 떠오르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회사는 물론 나라의 국운도 함께 상승하기를 기원했습니다.”(권오성 상무)

“가족끼리 이렇게 해를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얻게 돼 정말 좋았고 즐거운 새해맞이 이벤트가 된 것 같아요.”(아내 고건희)

“꼭 해를 보러 오는 게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아들 권날빛)

“배 위에서 일출을 보는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색달랐습니다.”(딸 권빛샘)

고정익세부계통실 모여라!

약 100여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항공기 구성품의 각 계통 개발부터 국내 개발 항공기의 기술 지원까지 실로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익세부계통실은 촌각을 다투는 일만큼이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직원들이 곧 자부심인 곳이다. 각 팀의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 경남 사천 본사를 찾았다.

글 한미림 사진 안종근 기획 배화윤 차장

※ 본 칼럼은 조직개편 전 촬영분으로써 기존 조직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5대 비행제어팀을 향해!

비행제어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항공사와도 꾸준한 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인제 팀장
고정익세부계통실 비행제어팀

비행제어팀은 항공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비행제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항공기가 가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 및 자율 비행을 가능케 해주는 항공기의 비행 필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저희 팀은 20여 년 동안 약 3,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 ‘최초’ ‘최고’라는 타이틀을 많은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단일 조직 중 비행제어 분야에서 국내 논문 대외 발표와 특히 출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제 팀장의 자부심은 실로 남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이상 이어온 노력으로 기술독립과 독자개발능력을 다져왔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업체, 연구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팀 유지의 베풀이 되는 책임급들은 대부분 15년 이상 비행제어팀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오며 형성된 팀워크는 자연스럽게 비행제어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조인제 팀장이 강조하는 업무 노하우는 이렇다. ◆개인보다는 그룹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개개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기꺼이 공유한다. ◆팀원은 서로를 신뢰한다. ◆팀원들은 합의를 이루어서 일을 추진한다. ◆인내하며 끝까지 노력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과 늘 학습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팀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팀원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조인제 팀장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2016년을 준비하고 있는 비행제어팀의 목표는 고정익 훈련기, 전투기에 그치지 않고 무인전투기, 순항미사일, 유통무기 분야에서도 보유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세계 5대 비행제어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는 조인제 팀장은 팀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성실과 자긍심으로

전기계통, 조종실, EMI / EMC, Wiring 설계, 전자장비 장착설계. 전장설계팀은 항공기의 어떠한 분야를 개조 설계하더라도 전장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박중규 팀장은 자신의 팀을 이른바 ‘약방의 감초’와 같다고 표현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잦은 탓에 간혹 팀원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박중규 팀장은 처음 팀장직을 맡던 순간의 다짐을 떠올린다고. “처음엔 우리 팀을 본부 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었지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먼저 인정을 해야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현재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업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팀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박중규 팀장의 이러한 리더십이 빛을 발해서일까. 전장설계팀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도면 배포가 단 한 차례도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2015년 상반기 T-X 시범기 개조 도면 배포를 원료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체 설계 변경 대상 도면 중에서 우리 팀에서 배포해야 할 도면이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했어요. 항공기 개조의 성패가 도면을 일정 내에 배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팀원들의 성실힘과 열정으로 오히려 일정보다 앞서 모든 도면을 배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발회의 때 자리에 모인 분들로부터 대단하다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고 설계 품질이 높은 도면들을 배포해 더욱 뿌듯했던 프로젝트였죠.” 성실과 자긍심을 무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박중규 팀장과 팀원들의 노력이 있는 한 전장설계팀의 이 같은 성과는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

제 잔소리에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잘 따라주는 팀원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단합하고 화합하는 전장설계팀 파이팅!



박중규 팀장
고정익세부계통실 전장설계팀



긍정적이며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세부계통팀.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Fly Together!

세부계통팀은 추진계통, 이차동력계통, 연료계통, 환경계통, 생명지원계통, 유압계통과 쟈룩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 요구도에 따라 각 계통의 요구조건을 검토하고 기준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맞게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기준 또한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각 계통을 설계, 해석하고 제작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세부계통팀의 일.

추진계통과 이차동력계통은 인간의 심장과 같고, 나머지 계통들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인간의 장기처럼 항공기의 기본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년수 팀장의 설명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병과 싸우듯 항공기 또한 많은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이 세부계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 고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하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마치 의사와 같은 존재와 같다고 할까요. 항공기를 구성하는 모든 계통이 그려 하겠지만, 세부계통은 특히 항공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 할 수 있어요.” 팀원이 무려 41명으로 고정의세부계통실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세부계통팀은 정년수 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인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년수 팀장은 ‘일단 결정하면 무조건 Go’라는 마인드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결정하기만 하면 그 후엔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팀원에 대한 믿음 덕분이다. “우리의 목표는 각자가 맡고 있는 각 계통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계통이 모여 하나가 되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각 계통은 최고가 아닌 최적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함께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팀원들을 향한 마음을 이 문구로 대신하고 싶네요. Fly Together!”

정년수 팀장
고정의세부계통실 세부계통팀



(왼쪽부터) 세부계통팀 손현의 책임연구원, 비행제어팀 안성준 선임연구원,
전장설계팀 이영제 선임연구원, 세부계통팀 우성조 책임연구원

Mini Interview



고정의세부계통실 황병문 실장

Q 고정의세부계통실이 어떤 곳인지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항공기 개발단계에서 엔진, 연료, 쟈룩장치, 환경, 전기, 조종실, 비행제어 등 고정의 항공기의 많은 구성품 중 기체구조물과 항공전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설계, 검증하고 이후 양산과 운영 단계에서 이런 분야에서의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Q 직원들이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황가네 소식’을 발행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팀 간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원들이 소식지를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기웠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돋독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팀·팀원 간 유기적인 소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해요.

‘황가네 소식’을 만드는 사람들

고정의세부계통실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직원들의 컴퓨터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 A4 한 장 분량의 아기자기한 파일 속에는 팀 회식부터 출산, 신입사원 소개까지 실원들의 다양한 소식이 실려 있는데, 이곳에 소박히 담긴 정성과 노력만큼은 여느 기성잡지에 비할 것이다. 2년째 ‘황가네 소식’을 만들고 있는 4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황가네 소식’ 발행을 계획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3년도 말 즈음 다가오는 201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사가 강조하는 가치 중 하나인 소통 부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심했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소식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겠냐고 제의했죠. 소통이라는 취지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반응도 좋아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소식지를 만들면서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편집을 하는 동안에는 별생각이 없다가도 막상 배포하고 난 후 동료들이 앉아서 읽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컴퓨터 화면마다 소식지가 띄어져 있으면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할 수 있는 소식들이 하나둘 모여 실 차원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느낌이고 유대감도 느는 것 같아요.

Q 실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 규모가 큰 편이다 보니 각 팀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소식지를 통해서 다른 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Q 소식지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짤막한 소식이라도 자주 발행해서 더 많은 실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실 전체가 활발하게 교류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우성조 책임연구원) 실 뿐만 아니라 본부 등 더 큰 조직에서도 이러한 소식지를 활용해서 소소한 개인사까지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이뤄졌으면 합니다.(이영제 선임연구원) 새해에는 엽서나 전화 등 실원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직원 간 소통에 더욱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성준 선임연구원)

Q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요? 올해에 KF-X 사업은 각 계통의 요구도와 Functional Baseline을 설정해 역량있는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조기에 전력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 년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기에 내년엔 여기에 집중해야겠지요. T-X 사업은 시범기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미국의 훈련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 목표들을 위해 세부계통실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실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Q 실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를 하다 보면 동료가 하는 일이나 애로사항, 고난 등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일에 치이다 보니 동료가 갖는 고민이 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2016년에는 서로 더욱 많은 관심을 나누면서 그 관심이 업무 성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손잡지 않고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유년 시절의 그는 고향 산천을 휘저으며 뛰놀았던 강릉 출신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백일장 장원을 차지할 만큼 글 솜씨가 빼어났다. 미술에도 소질이 있어 조각가의 미래도 꿈꿨다. 그러나 아버지는 의사 아들을 바라셨다. 의예과를 지원했지만 두 번이나 실패했다. 그러나 재수 당시 담임선생님이 자신 몰래 써놓은 2지망 동물학과에 덜컥 합격했다. 어렵게 올라 선 그 길 위에서 열대우림 속 동물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랑하게 되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이다.

글 김남희 사진 정우철

현재 최재천 원장의 시간은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깨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생태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 관련 기관들은 많지만 생태학에 기반을 둔 기관은 없습니다. 생태원 출범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생태학 연구 및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국립생태원은 99만 8,000㎡ 면적(축구장 92개를 모아놓은 크기)에 세계 5 대 기후대를 재현한 생태체험관 에코리움과 한반도 고유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공간의 한반도 숲, 습지생태원, 고산생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원 1년 만인 지난 2014년 말,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생태 관광명소다.

협력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

동물계에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듯이 인간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지배한다. 무엇보다 현대의 정글은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고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한다. 승자 독식의 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는 느낌이랄까. 한쪽만 이기는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아니, 미래가 없다.

“자연생태계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공생을 실천하는 생물들이 경쟁만 하는 생물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구에서 살아남은 종 가운데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가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심비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기를 열망하는 한편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생존을 한쪽만 이기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생의 개념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의 책 『호모 심비우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설령 과학이 개인들 간의 차이, 그리고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에 기반을 둔 경쟁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을 강요한다. 조건이 바뀌

Profile

최재천 원장은 1954년 강원도 강릉에서 4형제 중 맏이로 태어났다.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생태학 석사학위,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대, 미시간대, 서울대에서 동물학을 가르쳤고, 한국생태학회 부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지내며 2013년부터 국립생태원장을 맡고 있다. 『개미제국의 발견』(1999),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2007), 『통섭의 식탁』(2011), 『호모 심비우스』(2011),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2015) 등 40여 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번역했다.



면 게임의 법칙도 바뀌는 법, 이제 미래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살 곳이 없다. 아니 협력하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

세계적인 생태학자이자 개미박사로도 유명한 그는 우리 사회의 논쟁적 이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동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냈고 2005년에는 남성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가 암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논리로 부계 중심의 호주제를 폐지하는 위헌 판결에 이바지한 공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에는 ‘제들이 야생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남방돌고래 제들이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생명다양성재단을 설립해 환경운동도 펼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자연을 험악하게 다뤘습니다. 자연에 대해, 생명에 대해 잘 모

르기 때문에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됩니다. 함부로 해치지 못합니다. 자연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다. 위기에 처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서 살 아남으려면 인간보다 지구를 더 오래 지켜온 동식물들의 세계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태학이란 환경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 생물과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 생물과 인간과의 관계 등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합니다. 2002년 서울에서 세계생태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가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에게 생태학이 환경 등의 다양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수 가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생태학 하나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학이 없으면 인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은 할 일이 많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함께

겨울을 걷다

2016년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행이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정한 제주도. 내 마음속에 감동과 즐거움의 휴양지로 자리 잡은 제주도로 그렇게 발을 내딛었다.

글·사진 구주사업관리팀 이정우 차장 사진제공 제주관광공사

추억이 담긴 곳,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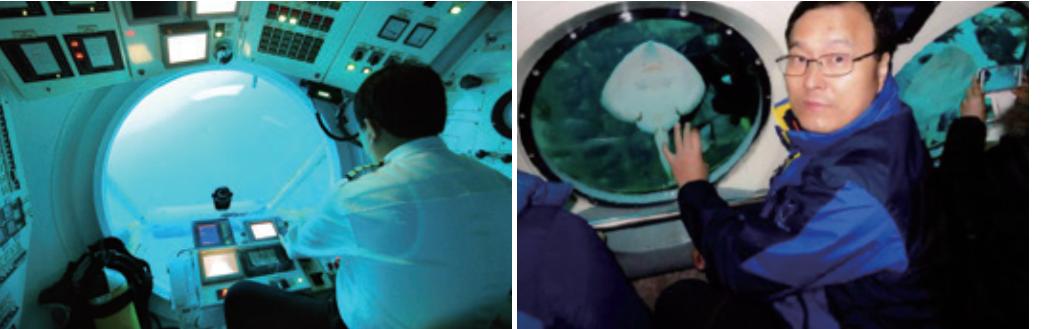
하니문으로 비행기 타고 처음 가보았던 곳이자, 회사 15년 근속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이 제주도였다. 그때 제주도에서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낀다.

이번이 세 번째 제주도 여행인데, 아들은 멀리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군복무 중인데이다 아내와 딸 모두 바빠 같이 갈 수 없다기에 아쉽지만 결국 나홀로 1박 2일 여행길에 올랐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1박 2일뿐이라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 전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여행사 관광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만 관광했었는데 이번에는 내 마음 내키는 곳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렌터카 예약만으로도 별 써부터 설렘이 가득했다. 어느 여행자들처럼 두툼하고 따뜻한 복장을 하고 배낭 속에 꼭 필요한 물품만을 챙기고 나자 비로소 진짜 여행의 기분이 나기 시작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들러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비게이션으로 호텔을 찾아가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 로터리에서 길을 잘못 들어 몇 번이나 노선을 혼란 끝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여행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일 또 맞게 될 새로움을 기대하기로 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제주 바다 속으로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다. 제주여행에서 볼 것도 갈 곳도 많지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잠수함을 타는 일이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기필코 잠수함을 타리라 마음먹고 사전 예약을 먼저 해두었고, 다행히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공항 근처에 있는 용두암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신혼여행 때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와보았던 기억이 용두암 곳곳에서 새록새록 피어났다.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과 연인들, 학생들이 자연 해변경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마라도 잠수함에 탑승했다. 잠수함이 출발하자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이 더욱 뚜렷하게 돋보였다.

그러는 사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저마다 자신만의 색채를 뿐내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각종 물고기의 군무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열대어와 형형색색의 산호 군락들이 나를 반겼다. 수중 20m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다이버가 어류들을 몰고 다니며 관광객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총 1시간 10분 정도의 잠수함은 다소 비싼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흥미진진한 경험이었다. 혹시 아직 타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권장할 만한 관광코스로 단, 사전 예약은 필수다.

최남단 마라도잠수함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26 문의: 064-794-0200

가격: 성인 55,000원/ 청소년 44,000원/ 어린이 33,000원 관람시간: 1시간 10분

제주 이모저모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루게릭 병을 앓으면서도 사진에 대한 열정을 바친 김영갑 사진작가가 2002년, 성산읍의 삼달분교를 빌려 연 것이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다. 그가 곳곳을 누비며 담아낸 제주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감상 할 수 있다.



용연 구름다리

옹두암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호수로 예로부터 용이 놀던 곳이라 ‘용연’이라 불린다. 낮에도 그 풍광이 아름답지만 화려하면서도 잔잔한 조명이 비추는 야경이 특히 불만하다.



하루e 수다

올레 18코스 중간 신촌리 선착장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음식 맛에 반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곳. 주메뉴는 갓구운 와플과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제철 샐러드가 올라간 실속 ‘브런치’ 등이다. 제주도 ‘기름떡’이라 불리는 별떡과 하루e 수다에서 자체개발한 ‘흑임자녹두빙수’도 일품이다.



여행의 참맛을 느낀 시간

잠수함에서 나오자마자 금세 허기가 물려왔다. 마침 관광 책자에서 ‘중문랜드 제주향토 음식뷔페’를 발견하고 바로 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도중 감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탓일까. 뷔페식당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점심시간이 끝난 상황. 저녁을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니 배도 고프고 막막해졌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찰나, 같은 건물에 있는 실탄사격장이 눈에 들어왔다. 비비탄 사격, 레이저 시뮬레이션 사격, 실탄 사격까지 나는 모두 도전해보기로 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여 시뮬레이션 권총, 장총을 쏘고 비비탄 권총, 장총을 쌌다. 첫 6발은 당황을 해서인지 두 발이 표적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후 표적을 향해 2차 발사를 했고 총 120점 만점에 83점의 결과를 받았다. 이 정도면 중상 정도의 실력은 된다는 코치의 설명과 더불어 이것 또한 잠수함 체험 즐거와 함께 내게는 기념될 만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나서 제주도의 만찬으로 차려진 뷔페를 맛있게 먹었다. 제주산 토종 흑돼지구이, 초밥, 전복죽, 각종 튀김과 과일까지 제주도 향토음식을 골고루 맛보며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다.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홀로 떠난 제주 추억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시간이었다. 용두암 관광, 잠수함 탑승, 감귤 농장 방문, 실탄사격, 렌터카 도로여행까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제주의 바람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 혼자였지만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제주도를 다시 여행할 때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며 여행기를 마친다.



미주사업관리1팀
배진영 과장의 결혼기념일

오늘보다



12월 25일. 한 해 중 가장 로맨틱한 날이기도 한 크리스마스가 누구보다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다. 이날이 곧 결혼기념일인 미주사업관리1팀의 배진영 과장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6주년을 맞은 결혼기념일이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Fly Together>가 빈티지 레스토랑에서 소박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글 한미림 사진 안종근

누구보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오후 4시가 되자 진주의 한 레스토랑으로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뜻 보기에도 작은 얼굴과 앳돼 보이는 외모가 인상적인 배진영 과장이 남편인 윤영한 씨의 손을 꼭 잡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크리스마스인데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취재진에게 건네는 인사 한 마디에도 따뜻한 친절과 애교가 몸에 배어 있는 그녀다. 남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다는 배진영 과장은 작년 결혼기념일의 기억을 털어놓으며 오늘 보내게 될 시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작년 결혼기념일 당시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셨어요. 병원 로비에서 작은 케이크로 기념일을 보냈었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멋진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항상 반기만 해서 제 손으로 작은 이벤트를 열어 주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 레스토랑 이벤트의 주메뉴는 마르살라 와인 소스와 한우로 요리한 안심스테이크 그리고 부부가 고심하며 고른 레드와인 ‘아팔타구아 시그니처’다. 부드러운 풍미가 강해 안심 스테이크와 더없이 어울리는 와인인데 오늘같이 특별한 날 즐기기엔 더없이 좋다.

여기에는 윤영한 씨가 아름다운 부케를 연상시키는 파스텔컬러의 꽃다발을 배진영 과장에게 건네니 순간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한층 화사해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숨어 있었으나, 바로 배진영 과장이 남편에게 주는 깜짝 선물이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금을 보태서 남편을 위한 목걸이를 장만했어요.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정말 잘했거든요. 뜻깊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6

항상 좋은 아내,
엄마로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고
지금처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자. 99

단단한 부부愛

6년 차 부부라면 이제 신혼의 재미가 제법 사라졌을 만한데도 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거제도와 사천을 오고 가는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에둘러 표현하기 힘든 하지만, 배진영 과장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들이 겪은 곱절의 위기가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이들은 결혼식 당일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로 결혼식 일정을 잡는 바람에 친구들로부터 불멘소리를 들은 것도 모자라 남편의 교통사고라는 악재까지 겹쳤던 것이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윤영한 씨의 망막박리 수술과 배진영 과장의 턱관절 수술이 이어졌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폭풍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 그들이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턱관절 수술로 말도 못했을 때 제 눈빛만 봐도 월 원하는지 다 알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죠. 친정어머니의 암 투병 중에도 자식인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질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길 정말 잘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다는 윤영한 씨 역시 이날만큼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항상 좋은 아내, 엄마로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고 지금처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자.”

지나온 6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배진영 과장 부부. 주어진 시련을 긍정과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온 이들이기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더 단단히 여물어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탁구로 뭉치다

진주 시장배
탁구대회

똘똘
뭉치다



지난 12월 20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 시장배 탁구대회 7부 경기가 열렸다. 7부 경기는 공식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엔트리 레벨 경기로 KAI 탁구동호회 '점심시간 탁구 소모임'(이하 점탁) 5인방(임강빈, 강진훈, 김상현, 김재원, 이성경)이 참여해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거머쥐었다. 처음엔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선전을 펼치면서 동호회 5인방 중 2명이 모두 결승에 진출! 점탁 멤버끼리 우승을 놓고 겨루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여러 번의 수싸움과 엉치락뒤치락을 반복하다 결국 3:2의 스코어로 김상현 회원이 7부 우승을, 김재원 회원이 7부 준우승을 하게 되었다. 경기 후에는 삼겹살과 치맥으로 즐거운 뒤풀이까지 이어졌다고. 덕분에 이번 대회는 점탁 5인방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고마운 선배, 둘도 없는 동기, 아끼는 후배,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거래 고객 등 소중한 지인들에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립니다.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지면에 소개할만한 KAI인, 팀워크가 좋은 부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은 동료, 특별한 사연의 가족 등을 추천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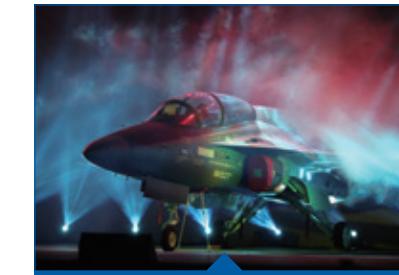
- 그간 KAI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출도 많이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성과는 KF-X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KAI에서 KF-X를 성공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최두현 님(경기 성남시 분당구)**
 - 제가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회사인 KAI의 미래와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수준 높은 사보를 보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자극을 받고 싶습니다. **신동윤 님(서울 광진구 자양동)**
 - KAI百科에 소개된 많은 성과는 KAI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역사에서도 멋지고 값진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멋진 일들이 KAI와 함께하게 될 것이기에 흐뭇합니다. **김상태 연구원(국제공동설계팀)**
 - 사보 준비하시는 분들의 열정 덕분에 사보내용 만족하며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KAI의 달인' 지면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많은데요.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쏟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지금의 KAI가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KAI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선 전임(외주검사사)**
 - 식당 퇴식구에 놓여 있는 사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오다 우연히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외부 시정과 다른 부서 동료의 업무 내용, 기타 생활에 유익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백종우 수석(항공기생산1팀)**

〈Fly Together〉를 읽고난 소감과 독자 쿠즈의 정답을 업서 또는 이메일(boram@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Quiz

독자퀴즈



Q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스텔스기에 맞게 조종석을 바꾸고 공중급유기 등을 장착해 미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모델 명칭은?
(6p 참고)

본 1월호는 조직개편 전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읽으시는 데 다소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QR코드를 찍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kaiwebzine.com

Congratulations!

Wedding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11월 29일

구매기획팀 박성춘 차장

12월 5일

헬기무장체계팀 문정준 연구원

12월 12일

자재관리팀 2직 박기열 전문

12월 12일

안전환경팀 김명훈 물리치료사

12월 20일

조립생산팀 6직 정기택 기술원

12월 27일

성능개량생산팀 1직 안병호 전임

1st Birthday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길!

11월 28일

조립생산팀 4직 문성수 전문 / 문채은(딸)

Family

행복이 늘었어요!

11월 29일

구조조립생산팀 3직 김훈 전임 / 득녀

12월 4일

KT-1체계팀 이가연 연구원 / 득녀

12월 6일

기체생산 1팀 김재용 기술원 / 득남

12월 8일

위성개발팀 류재호 선임 / 득남

12월 8일

최종조립생산팀 4직 김재윤 전임 / 득남

12월 9일

기체생산 2팀 강준교 과장 / 득녀

12월 11일

회전익보급체계팀 김대주 과장 / 득남



2016년 〈Fly Togethe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kaiwebzine.com

외부 인사 칼럼 정기 고정 편성

• '추억의 여행' 코너를 전사원으로 확대 개편

• 직원들의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오늘을 부탁해' 코너 신설

• 감사 메시지와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마음을 전해요' 코너 신설

2016년 〈Fly Together〉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코너는 유지하되 직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응형 웹진을 도입해 더 많은 독자와 소통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사보를 언제 어디서나 읽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신 만큼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Fly Together〉로 거듭나겠습니다.